

해풍지
海風誌
바닷바람을
타고 온 소식지

Maritime Heritage News

2026년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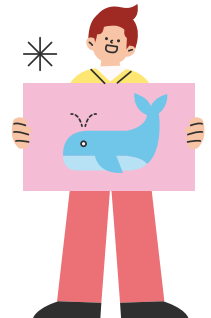




한국수중발굴 50주년 기념 ‘어린이 해양유산 그림그리기 공모전’ 성료

- 목포해양유물전시관서 수상작 전시도 함께 열려 -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 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최한 「어린이 해양유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내가 그리는 신비한 바닷속 해양유산’을 주제로 참여한 창작 활동으로,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해양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가 그리는 신비한 바닷속 해양유산”... 309점 접수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초등 저학년부 174점, 고학년부 135점으로 총 309점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접수되어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하였다. 연구소는 미술 및 해양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72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연구소 시청각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의 최고 영예인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은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되었다. 저학년 부문 대상은 서윤겸 어린이(초등 2학년)의 ‘바닷속 보물 탐험가와 함께 찾은 청자무늬 꽃병’이 차지하였다.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던 해양유산을 발견하는 순간을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과 선명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학년 부문 대상은 가예린 어린이(초등 4학년)의 ‘수중유산지킴이 달리와 함께 해양유산 찾기’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한국수중발굴 50주년 기념 캐릭터 ‘달리’와 함께 침몰선(난파선)을 발견하고 보물들을 찾아내는 극적인 장면을 참신한 아이디어와 몰입감 있는 구도로 풀어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도 해저 건물, 신비한 바다를 주제로 무한한 상상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4명의 어린이가 최우수상(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상)을 받았다.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수상작은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의 의미를 순수한 동심으로 빚었다.

연구소는 공모전의 뜻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시상식 당일인 5월 5일부터 17일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우리 해양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친근하게 배우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가예린 천안 백석초등학교 4학년



서윤겸 대구 경동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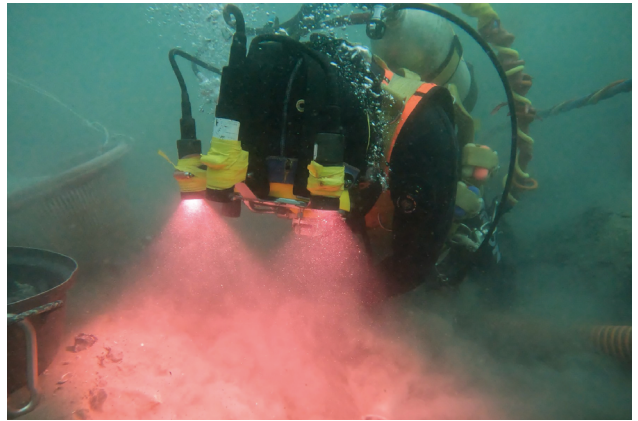
박보영 남해 남해초등학교 6학년



서연제 부천 상원초등학교 3학년



태안 마도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 시작



국립해양유물연구소는 5월 12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초등학교 신진도분교에서 수중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의미 있는 성과를 기원하는 개수제(開水祭)를 열고, 올해 수중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올해 조사 대상지는 지난해에 이어 태안 마도 해역이다. 태안 마도 해역은 고려·조선 시대 배들과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된 ‘바닷속 타임캡슐’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중 문화유산 보고이다.

이번 조사는 마도 해역 12차 조사로, 추정 ‘마도5호선’을 찾는 발굴조사와 지난해 인양한 조선시대 조운선 ‘마도4호선’ 매몰 지점 주변을 추가로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추정 마도5호선의 존재는 지난해 발견된 12세기 중반경의 청자 다발과 선체편 등을 통해 알려졌다. 올해는 고선박의 매장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마도4호선의 잔여 유물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몰 지점 주변을 추가로 시굴조사한다. 이와 함께 ‘해저 이상체 반응 지점’을 조사하여 추가 수중유산 또는 고선박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도 해역 내 유물 집중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지표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어린이체험관 해양유산 교육, 미션 완료!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운영한 어린이 해양유산 체험 교육 「바다탐험대: 체험관 미션을 완료하라!」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체험관에서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미션을 해결하며 해양유산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어린이체험관의 특화 코너를 탐험하며 크랩스터 수중발굴 퀴즈, 전통 한선 조립, 도자기 퍼즐 맞추기 등 다채로운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션을 완수한 아이들에게는 ‘슈링크스 키링 만들기’와 ‘해양 컬러링북 꾸미기’ 등 사후 활동 기회가 주어져 참여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육명	교육대상	내용	운영기간
(온라인)해양유산 만들기	유아·초등학생	해양유산 만들기 체험 교구 수령 후 온라인 교육	8.6.(목) ~ 8.20.(목)
청소년 바다문화학교	청소년 동반 가족	청소년 대상 전시 연계 미션 활동	8.4.(화), 8.5.(수)
제35기 바다문화학교	시니어	해양유산 주제 강연·연주회 감상 인문학 프로그램	9.17.(목) ~ 9.19.(토)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	중학생(단체)	메타버스 잼(ZEP) 활용 진로체험 교육	9.1.(화) ~ 11.20.(금)

태안

전시해설 교육프로그램 「태안에서 만나는 수중문화유산」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전시해설 교육프로그램 「태안에서 만나는 수중문화유산」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소개하고 수중유산의 발굴조사 과정과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보물 <청자사자모양뚜껑항로> 등 전시관 대표 소장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참가 대상에 따라 어린이, 성인, 전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색칠 엽서 만들기, 수중발굴 전문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단체해설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와 전화로 일정을 협의한 뒤, 공문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41-419-7076)



목포



1만여 명의 관람객과 함께한 어린이날 ‘하하호호 통합 축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어린이날 문화 행사 ‘하하호호 통합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지난 5월 5일 연구소 야외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세 기관이 연계한 릴레이 스탬프 투어, 야간 프라이빗 투어, 어린이 해양유산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바다 슬라임 만들기, 캐릭터 팬이 만들기 등 6종의 체험 부스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에는 총 10,192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행사 만족도가 84.7%로 높게 나타나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날 문화 행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목포 관내 유관기관과의 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관람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전시 해설 서비스 확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보다 유연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4월 28일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전시해설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에서 현장 접수 방식으로 확대 운영한다. 관람객은 별도 예약 없이 전시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시해설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 해설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1일 2회 운영되며, 회당 약 40분 동안 진행된다. 원활한 해설을 위해 참여 인원은 회당 선착순 15명으로 제한된다.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전화 예약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객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접수 해설 시간을 제외하고 희망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다.

태안

어린이날 기념 「전시관에서 찾아보는 바다의 보물」 운영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2일 「전시관에서 찾아보는 바다의 보물」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상설전시실 속 해양문화유산을 찾아 퀴즈를 풀어보는 체험과 종이 잠수사 만들기, 어린이날 기념 풍선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18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서
「찾아가는 해양문화유산」 운영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참가하여 「찾아가는 해양문화유산」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해양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달하였다. 전시관과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등 주요 해양문화유산 복제품 3점을 전시하고, 종이 잠수사 만들기, 색칠 엽서 체험, SNS 팔로우 이벤트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편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전시관을 방문할 경우 보물 <청자두꺼비모양벼루>를 모티브로 제작한 '청자두꺼비모양벼루 키링'을 증정하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시관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오늘의 해양문화유산
「피꼬리 지저귀는 푸른 계절에」 운영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제1상설전시실 속 작은 전시인 「오늘의 해양문화유산」에서는 소장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한시(漢詩), <앵제녹수심(鶯啼綠樹深, 깊은 숲에 피꼬리 울고)>을 선보이고 있다. 이 유물은 2020년 4월,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의 한 오래된 가옥에서 발견된 고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한시에는 안흥진과 신진도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그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던 선조들의 정취가 담겨 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으며, 전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선통신사선, 화성벚놀이 축제 행사 참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화성 벚놀이 축제'에서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해양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대표 축제와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연계하여 국민에게 전통 한선의 우수성과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축제 참여에 앞서 진행된 조선통신사선 무사항해 안전기원식(5.15.)에서는 화성시 관계자와 목포 관내 유관기관장, 문화관광해설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선통신사선의 안전한 항해와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기원하였다. 조선통신사선은 연구소가 2018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조선시대 외교선으로, 2025년에는 조선통신사 마지막 파견 이후 261년 만에 일본 오사카항 입항에 성공한 바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선상박물관과 승선체험을 통해 조선통신사선 재현 과정, 한일 배길 재현 항해 기록, 조선시대 외교와 해양교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특히 승선체험은 하루 2회씩 총 8회 진행되어 시민들이 조선통신사선 내부 전시와 해설, 실제 항해 체험,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조선시대 외교와 해양교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섬 연구기관협의회 섬포럼 공동 개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4월 30일 목포오션호텔 로얄볼룸홀에서 '2026년 대한민국 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섬 연구기관협의회 MOU 기념 섬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섬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취지로, 올해 1월 우리 연구소와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이 출범한 '섬 연구기관협의회'가 기획한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섬 관련 4개의 주제 아래 섬을 국가유산이자 미래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조사·보존·교육·활용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동연구 방향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 기록화 사업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올해부터 5년간 연구소 소장품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사진 촬영, 실측, 3D 스캔 등을 실시하여 소장품의 형태와 세부 정보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록화 사업은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신안선 출수 자단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록화 자료는 향후 신안선 출수 유물의 재질·형태 분석, 해상교역사 연구, 전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소장품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유산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며, 해양유산 연구자료의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 시산도·특량도 종합학술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6월 25일 고흥군 시산도와 특량도에서 섬 해양유산 종합학술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현지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소는 조사에 앞서 2월 20일 고흥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섬 지역 해양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주민설명회는 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우리 연구소와 고흥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역사·고고·건축·인류·민속·지질 등 분야별 전문 조사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섬진흥원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사업 설명, 조사과정 및 연구소 홍보영상 상영, 조사단 소개, 관계자 인사말 등으로 진행되었다. 시산도와 특량도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섬 해양유산 종합학술조사는 2027년까지 계속되며,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AI 활용 수중유물 연구방법 개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수중유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수중유산 연구 기반 확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에는 연구소에서 발굴한 수중유물에 대한 제작자 자동판별을 위한 AI 연구방법을 개발한다.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화물자기는 동시대의 물건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특성이 있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연구소가 소장한 유적별 출수 자기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AI에게 학습시켜, 사용자가 유물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 유사한 비교 유물과 생산지 분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해양유산 보존처리 실습학기제 운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출수 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실습은 6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7주간 진행되며, 2명의 학생이 도자기 보존처리와 목재 보존처리 등 해양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KBS 광주방송총국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4월 14일 KBS광주방송총국과 한국수중발굴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소는 촬영 협조와 자료 제공을 KBS광주방송총국은 영상 촬영 등 제작과 홍보를 약속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시 다큐멘터리인 '난파, 잠에서 깨어나다'(가제)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제작 후 방송될 예정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전시 실무 약정 체결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고하도에서 만나는 모형배」공동 전시를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실무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2025년 7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와 목포해상케이블카 경영기획실은 해양유산 공동 전시의 기획과 운영 전반에 긴밀히 협력하고, 고하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해양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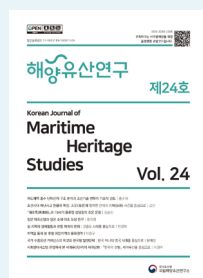


신규발간

『해양유산연구』 제24호 발간

『해양유산연구』는 KCI 등재 해양유산 전문 학술지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24호에는 고선박, 역사, 미술사, 인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8편을 수록하였다. 『해양유산연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해양유산연구』
바로보기



『거북선 학술복원 보고서』 발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통제영과 전라좌수영 거북선의 구조 및 기능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북선 학술복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2권 1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간된 도서는 국내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거북선 학술복원 보고서』
바로보기



3분기 예정 행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념>

해양유산 홍보부스 운영

2026.7.19.~7.29.
부산 벡스코
대한민국관

조선통신사선 선상박물관 운영

(고흥) 7.11.~7.13./녹동항 (여수) 7.17.~7.18./신항
(통영) 7.21.~7.22./통영항 (부산) 7.25.~7.26./다이아몬드베이
* 1일 2회/ 회당 50명/ 인터넷 사전예약(고흥군, 여주시, 통영시, 부산문화재단 누리집 참조)

공동전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2026.7.14.~2026.8.30.
범어사 성보박물관

<한국수중발굴 50주년 기념>

제1기 수중고고학 캠프(전문인력)

2026.8.10.~2026.8.24.
광주 남부대학교, 태안 마도 해역 등

제2기 고려난파선 수중발굴캠프(국민참여)

2026.9.2.~2026.9.8.
충청남도 태안 마도 해역

특별전 <신안선 자단목(가제)>

2026.9.14.~2027.2.14.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6.9.16. 10:00~18:00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강당

수중발굴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6.9.17. 12:30~17:45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강당

알림

주요 인사 동정

지난 5월 13일, 신임 기획운영과장으로 조현수 과장이 취임하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정책 고객단 모집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정책 고객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책 고객단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연구소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소 주요 행사와 소식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현장 접수(전시관 내 신청서 비치) 혹은 이메일 접수(nara17@korea.kr)

※ 가입신청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누리집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



인스타그램

09:00~18:00(월요일 휴관)

09:00~18:00(월요일 휴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체험관

10:00~16:30

수중유산 신고,

바닷속 잠든 우리 역사를 깨우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신고
전화

국가유산청
080-250-8000

국립해양유산연구소
061-270-2060

전국경찰서
112

전국 관할 사군구청
매장유산 담당부서

수중유산,
어떻게 신고하나요?

01
바다, 강, 호수에서
수중유산 발견

02
발견 후 30일 이내에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

03
신고 된 수중유산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04
수중유산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05
수중유산 발굴의 원인을
제출한 자에게는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